

# 가장 근원적인 ‘흙’...“제게 고향이자 어머니이죠”

### 진도 출신 재불화가 채성필 ‘...의명의 땅’전 내달 1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서 17점 선배 30년째 흙 작업...“이상적인 아름다움” 고심

그는 ‘흙의 화가’로 불린다. 그가 처음 밟았던 흙은 남도 땅이었다. 진도 출생으로 서울로 올라가기 전 중학교 3학년 이전에는 그렇다. 그러다가 서울대 동양화과를 거쳐 2003년 프랑스로 건너가 대학원 석사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며 재불화가로 활동 중이다. 들고 돌아 그가 광주에서 전시를 여는 이면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뚜렷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데다 진도 출생이라고 하는 뿌리가 마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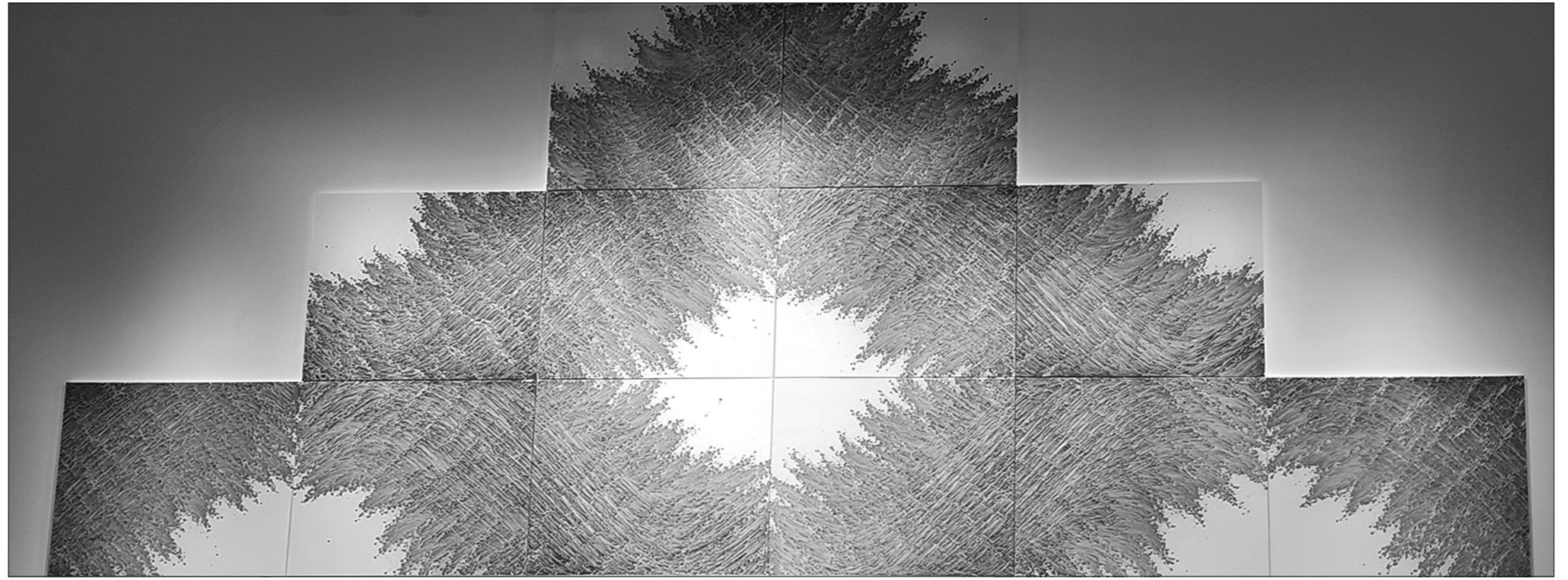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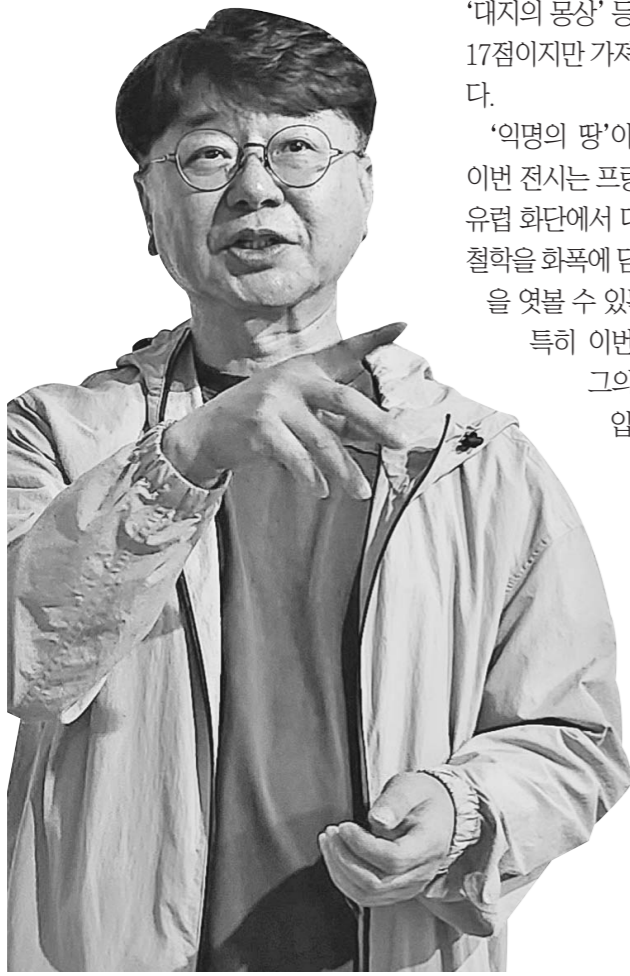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이 물색하던 화가 후보군에 들어와서다. 그는 한국을 떠나 있기에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더했는지 모를 일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이 올해 현대미술기획전으로 마련해 지난 4월 28일 개막, 오는 6월 1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5, 6 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는 ‘흙 그림-의명의 땅’전이 그것으로, 전시주인공은 재불화가 채성필씨다. 크기가 가로 12m, 세로가 4m 80cm에 달하는 초대작 ‘대지의 몽상’ 등 출품작은 근작들로 회화 17점이지만 가지는 작품은 40점이라고 한다.

‘의명의 땅’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유럽 화단에서 대자연의 생명력과 동양적 철학을 화폭에 담은 그의 회화세계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자리로 부족함이 없다.

특히 이번 광주시립미술관 전시는 그의 30년 예술 인생 전반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작가는 그동안 한국 전통 회화의 철학적 바탕 위에 서구적 조형 어법을 결합해 독보적 화업을 구축해 왔다. 그는 전 세계의 흙을 채집해 정제 한 뒤 천연안료와 섞어 캔버스 위에 싣고 흘리는 방식을 통해 역동적인 대지의 숨결을 시각화한다는 설명



‘대지의 몽상’

이다. 요즘 그는 여의치 않아 진도 흙이 아닌 해남 흙을 가져다 재료로 사용했다는 전언이다.

이름테면 미술관 관계자의 그에 대한 설명처럼 서구 중심의 현대미술 구조 속 동양적 사유와 한국적 정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작가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언어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시를 접하면 그가 다른 작가들과 다른 결을 유지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오히려 예정된 작품보다 대작 3점을 빼내 여유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다른 작가들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 작품을 더 걸려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작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파티션도 놓지 않았고, 작품명에도 부각하지 않았다. 관람객들이 자유로운 작품 감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가 이번 전시에 임하는 소회는 다른 전시에 비해 다소 각별하다. “1986년에 진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나

왔고, 그후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 뒤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인데 사실은 진도 촌놈이 프랑스에 살다 보니까 문턱(뿌리)부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프랑스까지 와서 28년째 살고 있나, 작가로 살고 있나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번 광주 전시는 저한테 좀 특별한 감회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떠났던 내 고향을 찾아온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저한테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쉽게 고향이자 또 어머니이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그는 고향을 찾는 마음을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이 무엇일지와 또 물질로서의 (어떤) 흙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전시에서 주제로 담아봤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그는 한국 전통미술의 ‘자연 순응적 태도’를 현대미술의 가장 세련된 형식인 ‘물질 추상’으로 변안해 내고 있으며, 프랑스라는 서구 예술의 중심지에서 한국화의 정신적 근간을 잃지 않으면서도 보편적인 조형미를 획득하고 있다.

그는 한국적 미의식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세계 미술의 문맥 속에서 당당히 위치시킨다. 관객들은 그의 ‘의명의 땅’을 통해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추상이 조우하는 경이로운 지평을 목격하게 될 전망이다.

타이틀인 ‘의명의 땅’은 작가의 철학이 집약된 선연적 개념으로, ‘의명’은 이름이 없음을 넘어 인간의 체계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본연의 상태,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는 풀이다.

‘의명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삶과 더불어서 또는 삶 이전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그는 ‘흙’을 짚는다.

“저한테는 흙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됐고, 그것을 연구 중에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이 아마도 자기한테 주어진 화면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아마도 담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현대미술을 시작하면서 제게 주어진 화면 안에 (과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하는 그

런 고민들을 했죠. 그 이상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흙이 아닐까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흙을 가지고 작업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는 파리의 흙을 쓰고, 뉴욕 전시에서는 뉴욕의 흙을 썼지만 이 이면에는 마치 어머니를 대하는 듯한 근본으로서의 이야기 또는 모성으로서의 이야기, 어떤 모든 순환의 고리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이야기가 함축돼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가 말하는 땅은 사실적인 땅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땅을 지칭한다. 그래서 ‘의명의 땅’으로 호명된 것이다. 어머니라는 존재 역시 그림의 대상이자 동시에 고향이고 또 흙과 같은 존재여긴다.

흙을 재료로 쓰고 있는 회화작품의 진수를 접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다. 분주한 일상 속 여유를 내 전시장을 방문해 작품을 관람해보는 것도 유익한 문화나들이가 될 듯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스크린 위에 펼친 기억과 질문...상처·희생 기린다

###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독립영화관 기획 프로그램 선배 6~10일 프랑스영화주간·16~17일 5·18 윤이상음악회 등

해의 미개봉 프랑스 영화부터 5·18을 기억하는 음악·다큐멘터리까지, 영화 상영과 인문 강연이 결합된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이 광주독립영화관에서 펼쳐진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이달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세 가지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채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먼저 6일부터 10일까지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연계한 ‘프랑스 영화 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랑스 영화 주간에는 해외 우수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국내 미개봉 프랑스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를 매개로 건축·미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아우르는 강의를 함께 선보인다.

이날 오후 6시30분에는 ‘환송대, 다섯 번째 사’ 상영 후 이화진 교수(서울대 국어국문학과)가 ‘1958년, 북한에서 영화를 만든 프랑스 감독들’이라는 주제로 냉전지 프랑스와 북한 영화인의 교류를 조명하고, 오후 7시에는 ‘여름의 랑데부’ 상영 후 장수아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대표(프랑스 건축사, HMONP)가 ‘센강은 파리를 가로지르고’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8일 오후 2시에는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 상영 후 이상훈 광주영화영상인

연대 이사장이 ‘남과 여, 프랑스와 세계의 아이들’을 주제로 강연하는데 이어 9일 오후 5시에는 ‘그랑다르수의 이름 없는 남자’ 상영 후 조한을 기획자·연구자가 ‘이름 없는 예술 노동자의 초상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아울러 5·18광주민중항쟁 46주기를 맞아 국가폭력의 상처와 이름 없이 묻힌 희생을 음악과 영화로 되새기는 기획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6일 오후 4시30분에는 ‘윤이상 음악회: 화염 속의 천사’가 이뤄진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소식을 독일에서 접한 작곡가 윤이상이 아담해 발표한 관현악곡 ‘광주여 영원히’를 중심으로 그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다. 양진호 철학자(인문학교육연구소)가 강연자로 나서 국가 폭력과 역사적 비극을 음악으로 증언해온 윤이상의 삶과 예술을 해설하고, 대표곡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17일 오후 1시30분에는 ‘아시아의 뼈들’을 선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당한 오키나와 민중의 뼈를 발굴하는 과정을 담은 오쿠마 카츠야 감독의 다큐멘터리 ‘뼈를 발굴하는 남자’를 상영한다. 아시아 각지에서 이름 없이 묻힌 희생을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5·18 이후 광주가 이어온 기억과 진실의 복원이라는 가치와 깊이 공명할 전망이다. 상영 이후에는 ‘아시아 영화 인문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

포럼: 이름 없는 뼈와 기억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진행돼 오쿠마 카츠야 감독이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을 발표하고, 이국인 이사장((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행은 김은에 연구자(메이지가쿠인 대학)가 맡는다.

이외에 9일 오후 2시30분에는 한국 독립영화의 주요 작품을 재조명하는 기획 ‘발리비드: 한국 독립영화 베스트’ 프로그램으로 진모영 감독의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상영.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다.

이상훈 이사장은 “영화는 단지 이야

기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라며 “5월 한 달간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광주 시민들과 역사적 기억, 예술적 사유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시간표와 상영작 정보는 GIFT광주독립영화관 인스타그램(@gicinema)과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매는 무비예 프로그램으로 진모영 감독의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상영. 감독과의 대화 시간은 마련한다.

이상훈 이사장은 “영화는 단지 이야

## “박제된 역사 아닌 백제의 감각 느껴볼까”

### 문화유산 활용 프로 8~9일 나주 남파고택

나주 남파고택 마루에 앉으면 시간이 겹쳐진다. 고택의 걸 사이로 스며든 빛은 오래된 것이면서도 낯설지 않다. 그 빛을 손끝으로 여어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 나주를 대표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 남파고택에서 백제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체험 프로그램 ‘고택에 스민 빛의 조각’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의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고택, 그날의 초대’ 두 번째 순서다. 박물관 유리 너머에 머물던 유물을 일상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다.

핵심은 ‘금동신발 목걸이’ 제작이다.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형태를 모티브로 삼았다. 금속의 단단한 윤곽

위에 블랙 비즈와 자개가 더해진다. 고대의 장식은 현대의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 목에 걸린다. 1500년 전의 미감이 오늘의 옷차림 위에 얹힌다.

체험은 단순한 만들기를 넘어선다. 남파고택과 나주의 백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 한복을 입고 고택을 거니는 시간까지 이어진다. 고요한 마당과 처마 아래에서 참가자들은 과거를 ‘보는’ 대신 ‘지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주최 측은 “박제된 역사가 아닌, 소장하고 싶은 살아있는 역사로 다가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모집은 화차별 20명 선착순이다. 참가비는 2만5000원.

행혜운 기자 nab@gjdream.com

## 국립광주과학관 ‘연간회원 가족회원제’ 도입

### 이달부터 기존 1인당 3만원→3인 기준 7만원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생활 속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회원 가족회원제’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개인 연간회원제를 1인당 3만원에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가족 단위 관람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가족 단위 관람객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회원제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가족회원제는 직계가족 3인 기준 7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4인 이상 가족은 1인 추가 시 2만원을 더해 가족 규모에 맞춰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회원 가입 시 연중 상설전시관 무료 이용, 특별전 관람료 30% 할인, 특수 영상관 무료 이용, 주차요금 무료 등 기존 연간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